

‘천국의 향기’ 달콤 살벌한 욕망의 역사

향신료의 지구사

프레드 차라 지음·강경이 옮김

영화 ‘카모메 식당’에는 핀란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일본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손님이 거의 없어 한가롭기만 한 식당에 동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건 진한 시나몬향이 일품인 ‘시나몬롤’이다. ‘시나몬’은 전 세계가 사랑하는 대표적인 향신료 중 하나다. ‘천국의 향기’로 불리는 향신료는 어떻게 발견됐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을까.

미국 메릴랜드 세인트메리 대학에서 세계 지리와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프레드 차라가 쓴 ‘향신료의 지구사’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향신료의 이동이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본 책이다. 책은 ‘고대, 향신료의 전설이 시작된다’, ‘중세의 향신료, 동서 문화 교류의 중심에 서다’, ‘탐험의 시대, 새로운 향신료의 땅을 찾아 나서다’, ‘산업혁명기, 향신료 제국이 등장하다’, ‘오늘날의 향신료, 그리고 미래’ 등으로 구분해 향신료의 역사를 추적한다. 저자가 주목한 향신료는 후추(페퍼), 고추(칠리페퍼), 클로브(정향), 시나몬, 닷메그 다섯 가지다.

많은 향신료는 아시아에서 주로 생산됐다. 향신료를 쉽게 구할 수 없던 유럽에서는 향신료에 대한 수많은 전설이 생겨났

고, 그 전설은 유럽인의 욕망을 더욱 부추겨 유럽 여러나라가 ‘향신료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여러나라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몰루카 제도, 일명 ‘향신료 제도’를 차지하기 위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현대는 어떻게. 향신료가 각종 패스트푸드와 음료를 비롯해 다국적 식품기업이 생산하는 가공 식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소비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더 싼값으로 경쟁하려는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또 다른 형태의 향신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책의 감수를 맡은 ‘식탁 위의 한국사’ 저자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의 ‘한국 향신료의 오래된 역사



칠리페퍼

찾아서’도 책 밑미에 실려 있다. 조선시대 문헌을 통해 새양, 마늘, 파 등 원대 한반도에서 쓰이던 향신료의 역사를 들여다봤다. <휴머니스트·1만6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행복한 책 읽기

베르톨트 브레히트 ‘살아남은 자의 슬픔’ (한마당 펴냄)



독일의 현대문학가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1933년 1월 30일 히틀러의 집권을 예감하고 망명길에 오른다. 15년간의 망명을 끝내고 동독으로 돌아가지만 살아남기 위해 스탈린을 찬양하는 시를 쓴다.

그러나 그는 시인이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침묵할 때 침묵해서는 안 되는 시인이었다.

나치와 공산주의의 폭력으로부터 살아남고자 했던 그의 눈에는 따뜻하고 행복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해협의 산뜻한 보우트와 즐거운 뚝단배들이/ 내게는 보이지 않는다. 내게는 무엇보다도/ 어부들의 찢어진 어망이 눈에 띈다. 왜냐하면 자꾸/ 40대의 조각인 처가 허리를 꼬부리고 걸어가는 것만 이야기하는가?” <‘서정시를 쓰기 힘든 시대’ 중에서>

브레히트의 고백시, 시인은 시대의 깨어있는 영혼, 브레히트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 2014년 봄날에 부활했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 아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났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났을 때/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었다./ 패전국에서 하층 서민들은/ 굶주렸다. 승전국에서도 역시/ 하층 서민들은 굶주렸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우리는 또, 잊어버리게 될 것인가

전시가 아닌데도 사람들은 때로 죽는다. 더러는 급작스럽게, 영문도 모른 채 형체도 보이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때죽음을 당한다. ‘앞으로 일어날 전쟁’은 이웃 간에 자본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다.

우리는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욕망의 정체를 구분할 수 없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평범한 악’, 더러운 욕망의 무한질주다. 권력에 굴종하는 무사유의 삶이다.

브레히트의 시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진행형이다. 국가에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김없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입에서 입으로 바이러스처럼 번졌다. 대한민국의 세월은 침몰되었고 살아있는 희망은 수장되었다. 검은 권력은 여전했다. 노란리본이 기도처럼 바람에 날렸다. 아이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자본의 노예들이 부패한 냄새를 도처에 뿌리고 있을 뿐.

이 도시, 대한민국은 이제 돈을 향한 ‘눈먼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 作)가 되어가고 종내에는 ‘기억을 잃은 자들의 도시’(손흥규 作)가 될지도 모른다. 자본을 향한 피나는 싸움, 전쟁 중인 도시다. 이 욕망의 전쟁터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진실과 거짓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음모가 있다. 탐욕에 협조하며 침묵하는 법을 배우라고 한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법이라고. 먹고살기 위해 생사고투하는 사람들, 우리는 자주 망각하고 침묵하다가 참을 수 없으면 겨우 귀속말을 주고받는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녀의 장백한 몸통이 물속에서 썩었을 때/(매우 천천히) 일어난 일이지만, 하느님은 서서히 잊어버렸다.”

우리가 그렇게 잊어버리게 될 것인가. 수많은 재난을 잊고 살다가 부지불식간에 또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인가. 살아남아서 슬프다고, 힘없이 말해야 하는가.



김현주 1993년 광주일보신문에 소설 당선

새로 나온 책

▲도서관에서 책과 연애하다=미취학 아이를 둔 부모가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또 초·중·고등학생들이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하도록 도와야 하는지, 아이 양육으로 삶의 대부분을 헌신한 부모들이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저자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도, 시간을 죽이는 도구도 아니며,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려면 사람 사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알마·1만5000원>

▲상실 수업=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책이다.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의 단계를 거쳐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죽음과 남겨짐에 대한 실천적 도움을 통해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책의 진정성은 상실의 아픔을 체험한 이들이 일



상에서 부딪치는 슬픔과 고통의 상황들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인빅투스·1만3800원>

▲한국수=차기위가 맛있는 국수 레시피 노하우, 소면, 라면, 냉면, 파스타, 우동, 메밀국수, 칼국수, 쌀국수, 쫄면, 당면, 곤약면, 묵국수 등 국수로 할 수 있는 종류가 다양하고, 주재료와 고품질을 얻을 수 있는 부재료로 각종 채소부터 해산물, 육류까지 모든 식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찬국수 요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육수는 어떻게 내는지, 육수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국수를 내는 방법 등 다른 국수책에서는 볼 수 없는 알찬 정보들이 들어 있다.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다=‘도시란 원래 불편하고, 기꺼이 불행을 감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캐나다의 저널리스트 찰스 몽고메리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마땅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의 탐욕과 판단착오 때문에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삶의 수단인 집과 차에 그 자리를 내주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모여 만들어진 도시와, 공간,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찰한다. <미디어월·1만8000원>

▲신자유주의와 권력=신자유주의의 통치성에 관한 책. 모든 것을 시장의 논리로 환원하고, 치열한 경쟁이 모든 사회적 관계 곳곳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논리. 모든 안정적인 것을 불안정하게 흔들어 놓으며, 모든 견고한 것들을 유동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는 정치, 개개인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 또는 그 삶의 규칙에 작용을 가함으로써, 그를 둘러싼 환경을 생존 경쟁의 시장으로 만드는 권력, 책은 그것을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이라 부른다. <후마니타스·1만6000원>

▲왜 석유가 문제일까?=석유의 탄생과 개발, 각종 정부와 기업들 간의 경쟁, 지구온난화, 석유고갈, 대체 에너지 개발 등 우리가 꼭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할 석유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설명해주는, 통찰형 논술을 위한 청소년 교양 필독서. 석유가 가져온 풍요로움 뒤에 과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들려주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석유의 의미를 고민해 보게 한다. <반니·1만2000원>

어린이 책

▲대리석 거인=미켈란젤로의 다비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림을 통해 들려준다. 피렌체 시에는 엄청나게 큰 대리석 덩어리가 40년동안 방치돼 있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라는 미술가는 그 돌덩이 속에서 숨겨진 어떤 사람을 보았다. 밤낮 없이 작업을 하던 미켈란젤로는 3년 만에 목동 다비드가 거인 골리앗을 정복했듯 대리석 거인을 정복하게 된다. <북뱅크·1만2000원>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대백과=탈것의 모든 것을 담은 그림책. 아이들이 좋아하는 ‘탈것’이라는 주제를 크게 자동

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기차, 배, 비행기로 분류했다. 더 나아가 자동차는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로 분류했다. 아이들은 생생한 사진과 재미있는 만화가 담긴 책을 보며 자연스럽게 분류의 힘을 기를 수 있다. <주니어글든벨·2만2000원>

▲올려라 개구리아=시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호철 선생님의 첫 창작동화집. 점점 삭막해져가는 사회와 입시교육으로 힘들어하고 상처 입은 아이들을 해독시켜주는 힘과 재미가 가득하다. 마음에 생채기가 있는 어린이에게는

위로를 해주고, 즐겁게 살아가는 어린이에게는 어려운 이웃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을 심어준다. <고인돌·1만2000원>

▲콩콩이가 간다! 3=1권 아무거나 잘 먹는 동물, 2권 고기를 좋아하는 동물 편에 이어 3권 벌레와 풀을 먹는 동물 편이 새로 나왔다. 야생소년 콩콩이와 동물박사 뚜뚜가 아저씨가 이번에는 벌레와 풀을 먹는 동물을 만났다. 고라니, 두더지, 멧돼지, 쥐, 고슴도치, 다람쥐, 딱지까지 모두 모였다. <보리·1만5000원>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게시판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시주, 관상, 궁합, 택일 개명, 재물운, 혼사, 묘지상담 ☎(062)224-7687	고전방 동구 공동 34-4번지 중앙초등학교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전문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광주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고미술품 전문 대표 박한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황금당 동구 황금동 90번지(골박사거리) 커피정예물, 금, 보석, 시계 및 고급품목일체 고급시계 수리 대표 김삼홍 ☎(062)232-6453	큰술단지 동구 불로동 107-4 돌솥설렁탕, 돌솥갈비탕 돌솥우거지탕, 생고기 대표 추하림 ☎(062)222-6427	커피홀릭 충장로3가 11번지 (와이즈파크 정문 건너편2층)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빠리노래방 동구 호남동 78-5번지 2층(메가박스앞) 최신유행곡 음반 다양준비 대표 이순애 ☎(017)612-3765	이가회관 동구 금남로2가 11-2 (구동구청 뒷골목) 각종모임, 예약받은 단체손님예약주문 대표 이복례 ☎(062)224-1541	수양공인중개사 동구 금남로3가 삼호빌딩3층 대표 정태철 ☎(062)232-3315
낙지한마당 동구 대의동 69-3번지 (동부경찰서앞) 연포탕, 낙지볶음, 낙지비빔밥전문 ☎(062)225-1171	산수모밀 동구 금남로 2가 15 (전일빌딩 옆교너) 시원한모밀국수, 콩국수 막국수, 비빔국수 대표 김기창 ☎(062)233-5525	데미화랑 동구 공동 52-2 (구서계갤러리2층) 대표 장상철 ☎(070)4388-9505	금초서예문화연구원 동구 공동 51-22 원장 정광국 ☎(062)266-4888	똥이레 동구 대의동10-1 바다장어 찞구미전문 찜솥구이 대표 이재신 ☎(062)234-7942	광남기업 북구 두암동 849-26 두암시장입구 샷시, 유리, 조립식 판매 대표 이경규 ☎(062)263-0036, 010-3612-2100